

‘순익 5조 클럽’ 청신호… KB금융, 주주환원 보따리 푼다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익 4.4조
올해 8200억 자사주 매입·소각
총 주주 환원을 업계 최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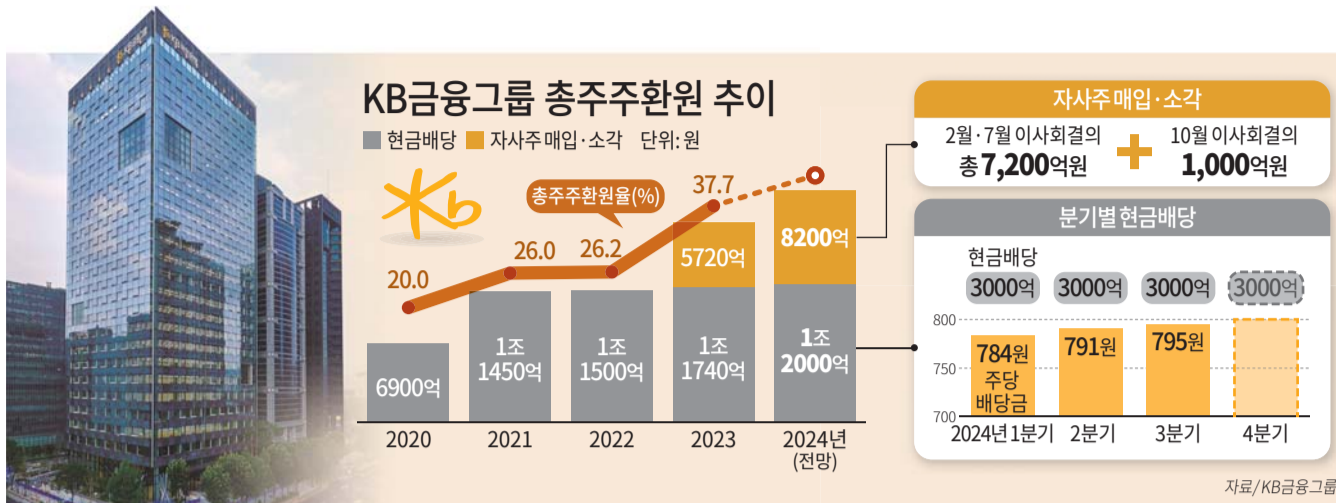
13% 초과자본, 내년 주주 환원
주주·기업가치 최우선 의지 표명

KB금융그룹이 올해 총 8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에 나선다. 업계 최대 규모다. 장기적으로는 보통주자본 비율(CET1비율)과 연계해 잉여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총주주환원율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KB금융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KB의 지속가능한 밸류-업(Value-up) 방안(이하 밸류업 공식)’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 CET1비율 13% 초과 자본 주주환원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이날 실적 공개에 앞서 ‘본원적 수익창출력 강화 방안’과 함께 밸류업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먼저 올해 연말 CET1비율 13%가 넘는 잉여자본은 2025년 1차 주주환원의



재원으로, 2025년 연중 13.5%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은 하반기 자사주·매입 소각 재원으로 활용한다. CET1비율과 연계한 주주환원은 JP모건 등 글로벌 선도 금융사의 주주환원 방식이다. CET1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총주주환원율도 증가한다.

KB금융 관계자는 “단순히 총주주환원율 목표를 제시하는 경쟁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방안이 주주환원과 연결되어야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수익성과

건전성, 주주환원 제고 관점에서 각각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CET1비율 13% 이상, 이를 바탕으로 CET1비율 연계 업계 최고 수준의 총주주환원율을 목표로 제시했다.

‘주당가치 성장’ 방안으로는 주주환원의 프레임 전환을 선언하면서 연평균 주당순이익(EPS) 성장률 10% 수준, 자사주 매입·소각 연평균 1000만주 이상을 내놨다.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소각 계획과 함께 주당배당금을 2분기 대비 상향된

795원으로 결의했다.

KB금융 재무담당임원은 “올해 총 8200억원의 자사주 매입·소각은 업계 최대 규모”라며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밸류업 공식과 관련해선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투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내 밸류업 게시판 신설을 비롯해 내년 연간 실적 발표회에서는 개인투자자 대상 질의응답 기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3분기 누적 순익 4조3953억원

KB금융의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4조39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3분기 순이익은 1조 614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8% 감소했다. 비이자이익이 7.9% 늘었지만 순이자마진(NIM)이 전분기 대비 13bp(1bp=0.01%포인트) 하락하면서 이자이익이 축소됐고, 2분기 일회성 이익의 기저효과도 영향을 비쳤다.

재무담당임원은 “전분기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보상과 관련해 총당부채환입 등의 기저효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감소했지만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정상적 기준으로는 전분기와 비슷한 실적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3분기 그룹 및 은행 NIM은 각각 1.95%, 1.71%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자산 수익률 리프라이징 가속화, 주택담보대출 금증 등 NIM 하방압력 요인이 3분기에 집중됐다.

9월 말 기준 CET1 비율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85%, 16.75%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예적금 금리 떨어지자 ‘청년도약계좌’로 눈 돌린다

19개 은행 적금금리 평균 연 3.1%
예금금리도 연 4% 넘는 상품 실종
청년도약계좌 연 9.54% 적금 효과
지난달 신규신청자 전월비 98% ↑

고금리 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만 34세 이하 가입 가능)가 인기다. 은행권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일제히 예·적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서다. 은행권은 상반기만 해도 연 10%대 예·적금상품을 출시했지만 현재는 고금리 상품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24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공시대상 19개 은행의 적금금리(우대금리 제외)는 연 2.44~3.70%, 평균 금리는 연 3.10%로 집계됐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KDB산업은행의 ‘KDB 기업정기적금’이 연 2.44%로 가장 낮았고, 우리은행 ‘WON적금’이 3.



청년도약계좌 해택 증가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스시스

70%로 가장 높았다. 우대금리를 포함했을 경우 연 2.44~4.90%로 BNK경남은행 ‘주거래 프리미엄 적금’이 가장 높았다.

예금금리 역시 연 2.40~3.42%,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연 2.80~3.55%로 연 4%가 넘는 상품이 없다.

상반기 예·적금 평균이 6%대가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금리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또한 NH농협은행은 지난 23일 거치식 예금금리를 0.25~0.40%포인트(p), 적립식 예금금리는 0.25~0.55%p씩 하향 조정했고, 우리은행도 적립식 예금금리를 0.20%p 인하했다.

은행권이 수신금리를 내리고 있는 이유는 지난 11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서 시장금리를 수신금

리에 반영하면서다.

투자자들은 예·적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는 가운데 외면 받던 ‘청년도약계좌’가 다시 각광 받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상품이다.

납입금액은 월 1000원~70만원,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직전 과세 기간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로 발길을 돌리는 이유는 해택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월 최대 기여금을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총 급여 2400만원(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보다 약 60만원 증가한 것으로, 연 9.54%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다.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게 된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당시만 하더라도 은행 예·적금 금리가 더 높았기 때문에 외면 받았지만 현재 은행권 금리가 3%대로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돌린 이유다.

실제 9월 청년도약계좌 신규 신청자 수는 8만9000명으로 전월 신규 신청자(5만명) 대비 98% 증가했다. 통상 신청자의 60%가량이 가입하는 걸 고려하면 5만여명의 신규 가입자 생길 것으로 보인다.

20대 직장인 A씨는 “은행 예·적금 금리가 많이 하락하면서 새로운 상품을 찾던 중 청년도약계좌가 눈에 들어왔다”며 “출시 초반과 달리 해택이 늘었고, 만기 시 받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매력적인 상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교체냐, 연임이냐… 조병규 우리은행장 내주 거취 결정

취임 후 우리은행 실적 증명에도
연이은 금융사고에 연임 빨간불

올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병규 우리은행장(사진)의 거취가 다음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 성과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연이은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대표이사추천위원회(자추위)는 오는 31일 회의를 열어 조행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17~18일 조행장의



조병규 우리은행장

거취를 결론 내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모았다. 조행장은 지난 2023년 7월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임기 만료는 오는 12월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가이드라인(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 따라 금융지주와 은행은 대표이사의 임기만료 3개월 이전에 경영승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조행장의 임기가 2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달 안에 결론을 지어야 한다.

조행장은 취임 후 우리은행 실적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우리은행은 올 상반기 순이익 1조 673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조23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늘어 우리은행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기업대출 잔액은 182조9370억원으로 7.31% 늘어 지난해 7월 취임사 때 밝힌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실적으로 증명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조행장 연임 가능성은 높지만 내부통제 실패가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 경남 김해금융센터 소속 직원이 서류를 위조해 약 100억원 규모 횡령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8월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로 총 3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지난달에는 55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만 세 번째다.

특히 금융당국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에 대해 우리은행의 ‘은폐의혹’과 ‘늦장 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조행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추위의 선택도 복잡해졌다.

오는 31일 자추위 회의에서 조행장의 연임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

별도의 롱리스트를 추리지 않는다. 즉, 조행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것으로 차기 행장 선임 프로세스는 가동되지 않는다.

반대로 조행장의 연임이 불발될 경우 조행장을 제외한 후보들로 롱리스트를 확정해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도입한 ‘은행장 선임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행장의 연임을 확정할 경우 금융당국과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자추위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경영진의 거취는 이사회에 맡기겠다고 말할 것이 결국 누구 한 명은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압박인 셈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